전주대, 천안 태조산 젊은연극제서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가 '2023 제2회 천안 태조산 젊은연극제'에서 참가작 '다시 돌아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유성목 교수는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천안 유일의 연극 축제인 '천안 태조산 젊은연극제'가 지난 2~9일 8일간 열렸다. 올해 2회째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학로의 전문 극단 못지않은 연출력과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다시 돌아와' 연출을 맡은 최은빈(공연방송연기학과 4년) 학생은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 에어컨을 켜고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에 매진했다"며 함께한 스태프, 유성목 교수님, 은비 선배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공연을 하고 싶어서'라는 열정으로 무작정 달려온 우리들의 열정 끝에 값진 대상을 받아 기쁘다"며 "'다시 돌아와'라는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다양한 폭력에 대해 많은 관객들과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 연극인으로서 뜻깊었다"고 덧붙였다.

지도교수상을 받은 유성목 교수는 "여름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으로 즐겁고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향후 예정된 공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실습경험학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진행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실습경험학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등 실습과목이 있는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기존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위험군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내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진로심리상담센터에 내방하고,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획했던 60명의 학생들이 전원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실습 중 힘들었던 점을 친구들과 편안하게 공유하고, 상담 선생님께 격려와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혜경 진로심리상담센터장(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짧게나마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소방서, 추석 대비 전통시장 관계기관 간담회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및 장수군 상인회와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총 184건 발생했으며 그 중 추석 전후(8~9월)에 45건(24.4%)이 발생했고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구리 전통시장 점포 화재 등 전통시장 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장수시장을 방문해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상인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시장 철시 전 화재예방 안내 협의 △소방공무원 화재취약시간대 예방순찰 및 '안전하기 좋은 날' 관련 정보 공유 등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고사례 정보 공유 등이 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저장강박 가구 관리·지원 적극"

전주제일로타리클럽 회원 등, 인후2동 저장강박 1인 가구 집 청소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김정민)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여명은 지난 15일 인후2동 관내에 거주하는 박모(72)씨의 집을 방문해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모씨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평소 재활용품 및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집안 곳곳에 쌓아 방치하는 바람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던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했다.

전주제일로타리클럽 회장님은 "생활환경이 열악해 스스로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관리 지원을 적극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해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에 관심갖고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대상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최하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기보)가 주관한 '김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제시민운동장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회복지 유공자를 찾아내어 포상하고 시민과 사회복지계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기관·시설 이용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소리모아'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신청한 곡 중 10곡을 선정하여 '어바웃타임' 팀을 초청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약자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서 농수특산물 판매 행사 성료

군산시가 자매도시 김천시에서 진행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시민의 알뜰 소비 촉진을 위한 군산시와 김천시의 자매도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교류행사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날 수제맥주, 흰찰쌀보리, 장아찌, 한과, 젓갈, 박대, 간장게장 등 49개 품목, 2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주문을 포함한 총 3,500여개 세트, 6,200여만원 상당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구매자에게 홍보용 군산 신동진 쌀과 흰찰쌀보리를 증정해 군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한 김천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올해는 수제맥주 제조·판매업체가 현장에서 시음과 판매를 진행해 김천시민에게 국산 맥아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의 깊은 맛과 매력을 알렸다.

채왕균 농기센터소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행사 추진으로 두 시의 상호 협력과 군산 농수산업인 및 가공 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하고 농수특산물 교류행사를 올해로 15회째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남중, 대정초 등 6학년 학생에 사격·목공 체험

전주남중학교(교장 한옥경)가 인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사격 및 목공 체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남중은 농구부뿐만 아니라 최근 리모델링 된 공기소총 사격실을 갖추고 사격부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목공 전문 공구 및 기자재로 채워진 목공실을 보유한 목공거점학교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대정초 등 인근 4개 초등학교 43명의 학생들은 전주남중에서 사격 체험과, 연필꽂이 목공예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사격 및 목공 체험 후 제빵 전문 설비를 갖춘 제과제빵실, 학생 자치 꿈담터와 예술놀이터 등 전주남중학교 내 시설들을 탐방하며 중학교 진학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금동, 소형 폐가전제품 처리 서비스 추진

남원시 금동(동장 조윤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형 폐가전 배출 편의 증진을 위해 동 자체 사업으로 '소형 폐가전제품 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형 폐가전 제품을 동으로 배출받아 보관, 일정 수량이 되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 의뢰해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배출 가능 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전기비데,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제습기, 토스트기, 커피머신 등 소형 가전제품이다.

현재 소형 폐가전제품은 대형 폐가전과 동시 배출하거나 수량이 5개 이상이 되어야만 무상 수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배출 방법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무단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 공로상 수상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이 지난 8일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창립 62주년 기념 통산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2015년 취임과 함께 '농협다운 농협' 실현을 약속하며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수익구조의 재편, 인적 관리시스템의 재정비,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남원농협을 변모시켰다.

남원농협은 박기열 조합장 취임 이후 고죽통합센터 내에 전국 최초 NH시네마 영화관 건립,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및 노인복지관을 남원농협 고죽통합센터 내에 유치했으며, 로컬푸드 판매장 2개소를 개점하여 농가 소득에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관내 최초 농작업 일괄 대행사업 실시,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3년 연속 1위 달성, 남원농협 총자산 1조원 시대를 여는 등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전 임직원들이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며,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확립 및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자5동 예닮교회, 추석 앞두고 이웃돕기 물품 기탁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소재 예닮교회(담임목사 조주만)는 지난 14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로 300만원 현금을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순식)를 통해 효자5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300만원의 현금 중 150만원은 추석에 이웃과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 참치선물세트를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예닮교회 조주만 목사님은 "코로나19 이후 명절의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사회분위기에 더욱 외로움을 느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효자5동주민센터 김수정동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로인해 나눔의 손길들이 모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닮교회는 2019년~2022년도까지 1500만원이 넘는 현금과 2021~2022년도에 희망상자 50박스씩 효자5동에 기탁하였으며, 고등학생 장학금 후원, 독거 어르신 섬김 잔치, 바자회, 가을 음악회 등 다양한 후원행사를 진행하는 등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자봉센터, 금산면에 자장면 재능기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14~15일 자원봉사 수요처와 금산면에 방문하여 총 200여 명에게 직접 만든 맛있는 자장면을 선물했다.

'오늘은 자장면 먹는날'은 외식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자장차를 이용한 찾아가는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이며 중화요리 전문봉사자의 재능기부(희망을 찾아가는 사랑의 자장차, 대표 김정민)로 운영되고 있다.

14일 김제숲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약 5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5일에는 금산면을 찾아 해당 지역 주민들 약 150여 명에게 즉석에서 만든 자장면과 군만두를 제공했다.

재능기부 전문봉사자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장면을 대접할 수 있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궁행원 센터장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매년 오늘은 자장면 먹는날을 진행해주시는 전문봉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이웃 간 안부를 묻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